

News

주담대 변동금리 5% 돌파... 고정금리까지 추월

머니S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6일 기준 3.59~5.004%로 집계... 한달여만에 하단이 0.25%p, 상단이 0.21%p 급등
지난 10월 말 처음으로 연 5% 넘어서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 과열된 은행채 금리가 최근 안정화되는 것으로 해석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

조선비즈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 본계약을 앞두고 자사주 매입... 5,000주를 장내 매입하여 총 10만 3,127주 보유
2022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겠다는 대내외 의지 표명이라는 설명

앞서가는 신한, 뒤쫓는 국민... 불붙는 '기술금융' 대출 경쟁

CEO스코어데일리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확대에 어려움 겪는 은행들이 기술금융 대출로 눈을 돌리는 중... 신한은행이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기술신용대출 잔액 1위 유지 중
기술신용대출은 신용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 현재는 인터넷은행 제외한 17개 은행에서 제공 중... 향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전망

패널티 면한 인터넷은행, 증금리대출 총량관리 제외 검토에 '반색'

뉴스1

금융당국, 증금리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인터넷은행에 무조건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질적 노력이 중요하고 기계적으로 패널티 주지 않을 것임을 설명
총량 관리 한도에서 증금리대출이 빠지면 일단 연간 대출 총량에 여유 생겨... 우량 중·저신용자 선별 능력 있는 인터넷은행이라면 제도 개편이 기회

하나생명, 보험상품 구성 변화... 유상증자로 탄력받을까

연합인포맥스

하나생명, 저축성보험 비중이 작아지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높아지는 중...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판매 확대하기 때문
IFRS17에서 저축성보험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아, 저축성보험 비중은 작아지는 중... 이달 중순내 유상증자 주권납입과 증자등기 마칠 예정

보험대리점 1200%를 시행 1년... 금융당국, 실태조사 나선다

머니S

금융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1,200%'를 어긴 GA에 대한 조사 나설 예정... 시행 이후 약 1년 만
우선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를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할 경우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

증권사 CEO들 출몰이 '연임 심판대' 선다... 절반 이상 임기만료

뉴스1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 중 절반인 5곳의 CEO 임기 만료... 다만 증권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서 상당수가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연임에 무리없어...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도 연임 가능성 높아...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

회사채펀드 '흔들' 국공채펀드 '굳건'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 금리가 뛰면서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 국공채 펀드와 달리 회사채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세 뚜렷
신용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회사채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모습...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